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양현아 · 박영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Yang Hyun A · Park Young Yae*
Hannam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needed to understand school-age children's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362 primary school children (the fourth and the sixth graders) and their mothers in "D" Metropolitan City, Korea. The research tools included standardiz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cale (Min,1991), stress coping behaviors scale (Min,1998), and child behavior problems scale (Hun,199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percentile,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al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the children who make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emonstrate high problem-solving,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 The children with close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have high hope·expectation, revenge cop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 the children making more close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show more behavior problems. The children with more closed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have more hyperactive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s, and immature behaviors, and the children who are making more closed communication retain more anxious behaviors and withdrawn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the more problem-solving and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s the children possess, the more problem behaviors they demonstrate. The more hope·expectation, revenge coping behavior the children possess, the more problem behaviors they show. With the results above, we can find out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has an effect on stress cop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behavior have an influence on child behavior problem.

Key Words : chil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child behavior problems

I. 서론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부적응 문제의 발생률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기에도 우울증, 공포, 강박, 불안, 히스테리 등의 정신장애와 비사회화성 공격형, 사회화 결핍형 등의 행동장애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홍순덕,1998). 특히 아동기의 행

동문제는 그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아 문제성의 발견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자칫 소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축적되거나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머지않아 나타날 청소년기의 문제를 이 시기에 육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기 행동문제는 다른 어떤 발달단계의 문제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가족환경, 가족외적 환경 및 아동의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Park, Young Yae
Tel: 011-1780-7441
E-mail: yypark@mail.hannam.ac.kr

개인적 특성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다.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관련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경주, 신효식, 1997; 한미현, 1996), 부모의 직업(한미현,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이경주, 신효식, 1997), 부부의 갈등수준(이정덕, 권영옥, 1999), 부모와의 의사소통(고상미, 2000; 고성애, 1998; 김주분, 1994; 김경화, 1989),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강성희, 이재연, 1992; 심희옥, 1997), 스트레스 대처행동(박진아, 2000; 이현정, 1997; 정연우 2001; 현은강, 이현정, 1999), 사회적 지지(강성희, 이재연, 1992; 이경주, 신효식, 1997; 한미현, 1996), 자아존중감(심희옥, 1997),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한미현, 1996; Cohen & Wills, 1985) 등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회적 환경인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며 그 중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정혜영, 1987).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하는 데 강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고상미, 2000).

의사소통에 관련된 몇 가지의 연구(고성애, 1998; 김경화, 1989; 노성향, 1994)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방식이나 기술이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하여 역기능적이면 자녀에게 행동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이중적인 의사전달, 낮은 자아개념과 약한 자기통제성을 생성하는 가족의 부정적 의사소통 구조, 자녀 행위에 평가적인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 등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며, 정서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부모-자녀간의 해결되지 않은 의사소통은 내부적인 욕구불만을 일으켜, 권위에 반항하는 아동에게 부적응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남현주, 1996). 따라서 아동기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더불어 오늘날 아동 행동문제의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동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가족 관계에서 나아가 학교와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확대된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 요구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기는 물론 아동기의 스트레스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면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고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박진아, 정문자 2001, 재인용), 스트레스의 영향을 증대하는 요인의 존재 여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다루어내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d & Weisz, 1988, 박진아, 정문자 2001, 재인용). 즉 스트레스는 그 존재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의 성패 여부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도,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함에 있어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두 변인과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행동문제와의 관계(고상미, 2000; 김주분, 1994), 부모의 의사소통과 행동문제와의 관계(고성애, 1998; 김경화, 1989; 정나영, 1999),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박진아, 2000; 이현정, 1997; 정연우, 2001; 현은강, 이현정, 1999)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 또는 의사소통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대화는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원만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승원, 1999). 그런가 하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려우며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이 부족하다(Barnes & Olson, 1982). 이런 의미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아동의 스트레스상황 대처행동과의 관계는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의사소통과 행동문제 사이의 매개변인적 위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및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상호관계를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는 아동행동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아동이 건강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건전한 지지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핵심이 무엇이며,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부모교육과 아동지도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4학년과 6학년 남녀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총 780부(390쌍)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수집

된 자료를 검토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되어 온전한 쌍을 이루는 724부(362쌍)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들의 행정구역별, 학교별, 학급별 및 남녀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N)	백분율 (%)
성별 (N=362)	남학생	191	52.8
	여학생	171	47.2
학년 (N=362)	4학년	177	48.9
	6학년	185	51.1
부학력 (N=342)	고졸이하	137	40.0
	전문대졸·대졸	152	44.5
	대학원이상	53	15.5
모학력 (N=346)	고졸이하	214	61.8
	전문대졸·대졸	114	33.0
	대학원이상	18	5.2
부직업 (N=328)	무직	3	0.8
	전문직(판·검사, 의사, 약사, 연구원 등)	64	17.7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회사원 등)	69	19.1
	사무직(계장, 대리, 평사원 등)	22	6.1
	판매·서비스직 및 상업	113	31.2
	기술 및 생산직	48	13.3
	기타	9	2.5
모직업 (N=339)	전업주부	180	49.7
	전문직(판·검사, 의사, 약사, 연구원 등)	25	6.9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회사원 등)	8	2.2
	사무직(계장, 대리, 평사원 등)	13	3.6
	판매·서비스직 및 상업	85	23.5
	기술 및 생산직	15	4.1
	기타	13	3.6
월소득 (N=322)	200만원 미만	82	22.7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50	41.4
	350만원 이상	90	24.9

<표 1> 표집 대상 아동의 학년, 성별 인원수

학년 성	구 학교	지역					합계
		가구	나구	다구	라구	마구	
		A	B	C	D	E	
4학년 (N=177)	남	20	18	19	18	21	96
	여	15	16	16	17	17	81
6학년 (N=185)	남	18	19	19	20	19	95
	여	18	18	17	20	17	90
합계		71	71	71	75	74	362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세 가지로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행동문제 척도가 사용되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1991)의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설문지형 척도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에 의하여 지각된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20문항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버지용 척도와 어머니용 척도의 내용은 실제로 동일하다.

이 척도는 원래 청소년용 척도로서 아동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복잡한 표현들이 사용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의 표현을 조절하였고, 척도 요인의 명칭은 그 내용 특성을 반영하여 개방적 의사소통은 개방·친밀형 의사소통으로, 문제형 의사소통은 거부·억압형 의사소통으로 변경하였다. 부모가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은 부개방·친밀성(10문항), 부거부·억압성(10문항), 모개방·친밀성(10문항), 모거부·억압성(10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문항별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는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 .77,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75로 나왔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부개방·친밀성 .73, 부거부·억압성 .72, 모개방·친밀성 .74, 모거부·억압성 .72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민하영(1998)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설문지형 척도로 총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하위요인 즉 해결방안강구 대처행동(6문항), 소망·기원 대처행동(6문항), 회피·부정 대처행동(6문항), 보복·양갈음 대처행동(6문항), 지지추구 대처행동(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역시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문항별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는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해결방안강구 .69, 소망·기원 .71, 회피·부정 .74, 보복·양갈음 .77, 지지추구 .69로 나왔다.

3)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현(1996)이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사용하여 국내 실

정에 맞게 표준화 및 타당화 작업을 마친 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다섯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별로 각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왔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과잉행동 .83, 불안행동 .84, 위축행동 .85, 공격행동 .83, 미성숙행동 .80으로 나왔다.

3. 연구 절차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척도에 대한 예비조사는 2002년 11월 23일~25일 초등학교 4학년 10명, 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문항의 이해도와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12월 13일~12월 26일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척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고 응답자의 동기과 응답률을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는 색지(하늘, 연두, 분홍)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 6학년 아동의 학급별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는 SPSS program(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의 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의 일반적인 특징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특징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간 의사소통 방식이 지니는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보면,

<표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의 하위요인별 점수 평균 (N=362)

요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전반적 의사소통의 긍정적 특성 M(SD)
	개방·친밀성 M(SD)	거부·억압성 M(SD)	
부모			
부	3.48(0.81)	2.44(0.67)	3.51(0.67)
모	3.86(0.79)	2.40(0.70)	3.73(0.67)
	t=-8.92***	t=1.29	t=-5.99***

*** p<.001

모개방·친밀성(M=3.8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개방·친밀성(M=3.48)이었으며 모거부·억압성(M=2.40)이 가장 낮게 나왔다. 전반적 의사소통의 긍정적 특성에서는 모(M=3.73)가 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부정적, 억압적이기보다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개방·친밀성(t=-8.92, p<.001)과 전반적 의사소통의 긍정적 특성(t=-5.99, p<.001)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아동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친밀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일반적 특징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별 점수 평균 (N=36)

요인	해결방안 강구	소망·기원	회피·부정	보복·양감음	지지추구
평균	3.13	2.94	3.08	2.79	3.10
SD	0.79	0.78	0.66	0.88	0.9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보면 해결방안강구(M=3.1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지추구(M=3.10), 회피·부정(M=3.08)의 순으로 나왔으며, 보복·양감음(M=2.79)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요즘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하려 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소망하거나 보복·양감음을 하려 하기기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복이나 양감음보다는 차라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편이고, 또 이보다는 차라리 문제를 피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행동문제의 일반적인 특징

어머니들이 본 초등학교 아동들의 행동문제가 보이는 전반적인 수준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행동문제의 하위요인별 점수 평균 (N=362)

요인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
M	2.00	2.04	1.72	1.64	1.89	1.86
SD	0.49	0.51	0.43	0.45	0.46	0.38

행동문제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보면, 불안행동(M=2.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과잉행동(M=2.00), 미성숙행동(M=1.89), 위축행동(M=1.72), 공격행동(M=1.64)의 순으로 나왔다. 이는 요즘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문제 가운데서는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보다는 미성숙한 행동이 많고, 그보다는 불안행동과 과잉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관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요인들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의 개방·친밀성은 아동의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표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관관계 (N=36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행동				
	해결방안 강구	소망·기원	회피·부정	보복·양감음	지지추구
부개방·친밀성	.39***	-.06	.11*	-.11*	.36***
부거부·억압성	-.21***	.27***	.03	.25***	-.12*
모개방·친밀성	.38***	.02	.17***	-.09	.42***
모거부·억압성	-.19***	.18***	-.08	.30***	-.19***

* p<.05, *** p<.001

등의 대처행동과 비교적 높고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보복·양값음 행동과는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거부·억압성은 아동의 보복·양값음, 소망·기원 등의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대처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 개방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복을 꿈꾸거나 마음속으로만 해결을 기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부적·억압적 분위기에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복과 양값음을 하려하거나 또는 신에 의존하여 마음속으로만 자기 소망을 기원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거나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행동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 간의 차이를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개방·친밀성은 해결방안 강구($r=.39, p<.001$)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모개방·친밀성은 지지추구($r=.42, p<.001$)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친밀하게 대하는 경우 아동은 문제상황에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행동과 노력을 더 많이 보이는 데 비해 어머니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움과 지지를 구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거부·억압성은 소망·기원 행동($r=.27, p<.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모거부·억압성은 보복·양값음($r=.30, p<.001$)과 두드러지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거부·억압적인 방식으로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동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표현하려 하기보다 속으로만 바램을 지니고 있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데 비해, 어머니가 거부·억압적인 경우 아동은 다른 대처방식보다는 문제를 유발시킨 대상에 대한 보복과 양값음을 하려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해결방안강구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개방·친밀성($\beta=.27, p<.001$)과 모개방·친밀성($\beta=.25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였다. 이는

<표 7>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 (N=362)

스트레스 대처방법	예측변인	β	R^2	모델적합도
해결방안강구	부개방·친밀성	.27	.15	62.12***
	모개방·친밀성	.25	.20	44.94***
소망·기원	부거부·억압성	.38	.07	27.65***
	부개방·친밀성	-.18	.09	17.79***
회피·부정	모개방·친밀성	.17	.03	10.35***
	모거부·억압성	.32	.09	36.05***
보복·양값음	모개방·친밀성	-.14	.11	20.95***
	부거부·억압성	.12	.12	15.56***
지지추구	모개방·친밀성	.33	.18	78.45***
	부개방·친밀성	.32	.21	48.45***
	부거부·억압성	-.19	.23	36.37***

*** $p<.001$

해결방안강구 행동이 특히 부모의 개방·친밀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해 준다.

소망·기원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거부·억압성($\beta=.38, p<.001$), 부개방·친밀성($\beta=-.18,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였다. 이는 특히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소망·기원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 아버지와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울음이나 신의 힘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기원의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회피·부정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개방·친밀성($\beta=.17, p<.001$)으로 설명력은 3%였다. 이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거나 체념해버림으로써 문제의 직접 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보복·양값음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거부·억압성($\beta=.38, p<.001$), 모개방·친밀성($\beta=-.14, p<.001$), 부거부·억압성($\beta=.12,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였다. 이는 부모님과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으로 보복·양값음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동의 보복·양값음 행동은 특히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과 관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추구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개방·친밀성($\beta=.33, p<.001$), 부개방·친밀성($\beta=.32, p<.001$),

부거부·억압성($\beta=-.1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였다. 이는 부모님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정서적 위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문제의 관계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하위요인들과 행동문제의 하위요인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개방·친밀성($r=-.14, p<.01$)은 아동의 전체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 수준은 아니지만 모개방·친밀성($r=-.10$)도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거부·억압성($r=.19, p<.001$)과 모거부·억압성($r=.20, p<.001$)은 전체 행동문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긍정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부정적, 억압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전반적으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N=36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행동문제					전체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부개방·친밀성	-.04	-.12*	-.17***	-.11*	-.12*	-.14**
부거부·억압성	.16**	.14**	.15**	.16**	.16**	.19***
모개방·친밀성	-.08	.01	-.11*	-.10	-.14*	-.10
모거부·억압성	.20***	.06	-.14**	.19***	.20***	.20***

* p<.05, ** p<.01, *** p<.0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개방·친밀성은 위축행동($r=-.17, p<.001$)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불안행동($r=-.12, p<.05$), 미성숙행동($r=-.12, p<.05$), 공격행동($r=-.11, p<.05$) 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거부·억압성은 과잉행동($r=.16, p<.01$), 공격행동($r=.16, p<.01$), 미성숙행동($r=.16, p<.01$), 그리고 위축행동($r=.15, p<.01$), 불안행동($r=.14, p<.01$)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이 개방적이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줄어들며 거부적·억압적일수록 행동문제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모개방·친밀성은 미성숙행동

($r=-.14, p<.05$)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그리고 위축행동($r=-.11,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거부·억압성은 과잉행동($r=.20, p<.001$), 미성숙행동($r=.20, p<.001$), 공격행동($r=.19, p<.001$) 등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축행동($r=-.14,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이 개방적이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줄어들며, 거부적이고 억압적일수록 위축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동문제들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아동의 행동문제 중 위축행동은 부모의 개방·친밀성과는 부적상관을 공통적으로 보이나, 거부·억압성과는 부모간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거부·억압적일 때는 아동의 위축행동은 증가하나, 어머니가 거부·억압적일 때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 (N=362)

행동문제	예측변인	β	R ²	모델적합도
과잉행동	모거부·억압성	.20	.04	15.03***
불안행동	부거부·억압성	.14	.02	7.63**
위축행동	부개방·친밀성	-.17	.03	10.36***
공격행동	모거부·억압성	.19	.04	14.15***
미성숙행동	모거부·억압성	.20	.04	14.55***
전체	모거부·억압성	.13	.04	14.29***
	부거부·억압성	.12	.05	9.29***

** p<.01, *** p<.001

과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거부·억압성($\beta=.20,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였다. 이는 어머니와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주의가 산만하거나 부산하며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등의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거부·억압성($\beta=.14, p<.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였다. 이는 아버지와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이 많고 감정이나 기분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불안정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이다.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개방·친밀성($\beta=-.1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였다. 이는 아버지와 자유롭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의 사회적 위축행동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거부·억압성($\beta=.1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였다. 이는 어머니와 거부적이고 억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남들을 잘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파괴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미성숙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모거부·억압성($\beta=.20,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였다. 이는 어머니와 거부적이고 억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자기보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어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행동문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요인 중 모거부·억압성($\beta=.13, p<.001$), 부거부·억압성($\beta=.12, p<.001$)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긍정적 의사소통으로 감소될 수 있는 정도보다는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증가 또는 심화될 수 있는 정도가 더 큼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4.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1)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하위요인과 행동문제의 각 하위요인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해결방안강구($r=-.11, p<.05$)를 통한 스트레스 대처는 전체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 수준에는

<표 10>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N=362)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동문제						전체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해결방안강구	-.03	-.09	-.06	-.13*	-.11*	-.11*	
소망·기원	.21***	.19***	.12*	.09	.16**	.20***	
회피·부정	-.03	-.02	-.03	-.05	-.03	-.04	
보복·양갈음	.11*	.06	.06	.09	.08	.10	
지지추구	-.03	-.03	-.06	-.09	-.09	-.07	

* p<.05, ** p<.01, *** p<.001

못 미쳤지만 지지추구와 회피·부정도 미약하나마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러한 대처행동은 많이 사용할수록 행동문제가 감소하거나 적어도 행동문제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소망·기원($r=.20, p<.001$)은 전체 행동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의수준은 아니지만 보복·양갈음($r=.10$)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러한 대처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행동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결방안강구 대처행동은 특히 공격행동($r=-.13, p<.05$) 및 미성숙행동($r=-.11,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에서 해결방안강구 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격행동이나 미성숙행동과 같은 행동문제를 덜 보인다는 의미이다. 소망·기원 대처행동은 과잉행동($r=.21, p<.001$), 불안행동($r=.19, p<.001$), 미성숙행동($r=.19, p<.001$), 위축행동($r=.12, p<.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다양한 행동문제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보복·양갈음은 과잉행동($r=.11,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문제상황에 처하면 보복·양갈음을 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과잉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설명력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행동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과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21,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소망, 기원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아동일수록 과잉행동적 경

<표 11> 행동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설명력 (N=362)

행동문제	예측변인	β	R^2	모델적합도
과잉행동	소망·기원	.21	.05	17.33***
	해결방안강구	-.14	.06	14.22***
불안행동	소망·기원	.22	.04	10.65***
	해결방안강구	-.15	.02	5.58*
위축행동	소망·기원	.12	.02	5.82**
	해결방안강구	-.15	.03	5.34*
공격행동	소망·기원	.19	.03	9.86***
	해결방안강구	-.15	.05	8.81**
미성숙행동	소망·기원	.22	.04	14.60***
	해결방안강구	-.15	.06	11.52***

* p<.05, ** p<.01, *** p<.001

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안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 = .22, p < .001$)과 해결방안강구($\beta = -.18, p < .001$)였고 설명력은 6%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아동일수록 불안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일수록 불안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 = .12, p < .05$)이고 설명력은 2%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아동일수록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의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해결방안강구($\beta = -.15, p < .01$)와 소망·기원($\beta = .12, p < .05$)으로, 설명력은 3%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일수록 파괴적,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이며,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미성숙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 = .19, p < .001$)과 해결방안강구($\beta = -.15, p < .01$)로서, 설명력은 5%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망·기원 행동을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아동일수록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일수록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행동문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요인 중 소망·기원($\beta = .22, p < .001$) 및 해결방안강구($\beta = -.15, p < .001$)가 가장 잘 설명해 주었다. 소망·기원은 행동문제를 증가시키고 해결방안강구는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5.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설명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행동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과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 = .19, p < .001$)과 모거부·억압성($\beta = .19, p < .001$)이었으며, 설명력은 8%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망, 기원 대처행동을 하고 어머니와 거부·억압적인 의사소

<표 12>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상대적 설명력

(N=362)

행동문제	예측변인	β	R ²	모델적합도
과잉행동	소망·기원	.19	.05	17.33***
	모거부·억압성	.17	.08	14.64***
불안행동	소망·기원	.22	.04	14.22***
	해결방안강구	-.14	.06	10.65***
위축행동	부개방·친밀성	-.16	.03	10.11***
	소망·기원	.11	.04	7.47**
공격행동	모거부·억압성	.19	.04	13.98***
	모거부·억압성	.16	.04	16.29***
미성숙행동	소망·기원	.15	.06	11.63***
	해결방안강구	-.11	.07	9.16***
전체	모거부·억압성	.20	.04	15.74***
	소망·기원	.17	.07	13.51***
	해결방안강구	-.11	.08	10.63***

** p<.01, *** p<.001

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주의산만과 과다행동 등 과잉행동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불안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소망·기원($\beta = .22, p < .001$)과 해결방안강구($\beta = -.14, p < .001$)였고, 설명력은 6%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고, 소망, 기원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조바심, 걱정, 잦은 감정이나 기분 변화 등의 불안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부개방·친밀성($\beta = -.16, p < .001$)과 소망·기원($\beta = .11, p < .01$)으로, 설명력은 4%였다. 이는 아버지와 자유롭게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지닌 아동일수록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의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거부·억압성($\beta = .19, p < .001$)이고 설명력은 4%였다. 이는 어머니와 부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미성숙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모거부·억압성($\beta = .16, p < .001$), 소망·기원($\beta = .15, p < .01$), 해결방안강구($\beta = -.11, p < .001$) 등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였다. 이는 어머니와 부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스트레스에 소망·기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낮은 아동일수록 자기보다 어린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미성숙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는 모거부·억압성($\beta = .20$,

$p<.001$), 소망·기원($\beta=.17, p<.01$) 대처행동, 해결방안강구($\beta=-.11, p<.001$) 대처행동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주요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 사항들이다.

첫째, 세 연구변인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서 우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간섭과 훈육이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자녀와의 일상에서 보다 많은 양육적, 정서적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면, 응답(평균)의 분포가 의사소통(2.40-3.86)과 동일한 5점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매우 좁게 나타나(2.79-3.13)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비교적 고르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중에서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소망·기원, 보복·양갈음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보다 약간이나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부정적인 대처행동들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문제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체념하려 하는 회피·부정행동이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로 인한 감정 완화에 치중하여 울음, 기적, 신의 힘 등에 의존하려 하는 소망·기원행동이 상당 수준 보이는 것은 주의와 대처를 요하는 부분이다.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는, 문제 발생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고(4점 척도에서 1.64-2.04의 분포) 특정 행동문제로의 두드러진 편중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행동문제 중에서는 불안행동이나 과잉행동이 비교적 많이 보였다. 이는 아동들이 대체로 걱정과 조바심이 많고 신경이 예민

하며 감정이나 기분이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행동과 주의가 산만하고 차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활동성을 보이는 과잉행동을 비교적 많이 보인다는 것으로, 요즈음 우리나라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특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생활과 사회의 급변과 가치의 혼란, 학업과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긴장과 불안, 좌절과 무력감을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조절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과거에 흔히 문제행동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공격성이라든가 위축행동이었다면 이제는 불안행동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새롭고 보다 미묘한 형태의 문제가 주의를 끌게 되고 빈발하는 문제행동으로 추가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등의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보복·양갈음, 소망·기원 등의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행동을 덜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뚜렷하고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침을 확인시켜 준다. 그 중에서 특히 부거부·억압성은 아동의 소망·기원행동을, 모거부·억압성은 보복·양갈음 행동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부개방·친밀성은 소망·기원 행동을, 모개방·친밀성은 보복·양갈음 행동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현상은 (소망·기원이 내면화 행동으로, 보복·양갈음이 외면화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일한 의사소통 방식도 그것이 부모 중 누구와의 의사소통이었느냐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동의 소망·기원행동이 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그리고 보복·양갈음이 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되는 것은 특정 대처행동이 부모 중 누구의 영향에 더 민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긍정적 대처행동 뿐 아니라 회피·부정이라는 부정적 대처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는데(특히 어머니의 경우), 이는 자녀와의 자유스럽고 친밀한 상호작용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어떠한 부모행동도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아동의 행동에 한 가지 방향으로의 영향만을 주는 것일 수는 없음을 반증해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거의 모든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덜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난다는 정명희(1987)의 연구와 부모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자녀의 행동문제는 감소한다는 정세용(1994)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불안 및 위축 행동이 특히 아버지 행동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미성숙 행동이 어머니 행동에 의해 보다 잘 예측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처럼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도 부모에 따라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의 행동문제들을 비교적 잘 예측해주는 부모변인(의사소통방식)은 모거부·억압성으로, 어머니가 거부·억압적일수록 아동은 전체 행동문제는 물론 과잉행동, 미성숙 행동,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이는 적어도 아동의 행동문제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즉,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동문제의 감소보다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의 증가가 더 우세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비해 부거부·억압성은 특히 아동의 불안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데, 이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가 거부·억압적일 때는 아동의 불안행동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부거부·억압성은 위축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부개방·친밀성은 아동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여기서는 거부·억압성의 부정적 영향보다 개방·친밀성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나 행동문제 하위요인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상대적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거부·억압성이 아동의 위축행동과 정적 상관을 지닌 데 반해 모거부·억압성은 위축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면서 오히려 공격행동을 잘 예측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거부·억압은 아버지와 달리 아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되게 하는 면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처럼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도 부모의 동일한 행동이 상이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등의 대처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고, 소망·기원, 보복·강요 등의 대처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현상은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이현정(1997)의 연구와 긍정적인 대처방법은 행동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정적 대처방법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정연우(2001)의 연구

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문제 하위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설명력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소망·기원 행동, 해결방안강구 행동이 가장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고 소망·기원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소망·기원 행동이 모든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데 비해 해결방안강구 행동은 불안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아동일수록 불안과 공격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 두 요인 중에서는 소망·기원의 예측력이 더 높게 나왔고(표 11), 특히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은 특별히 소망·기원요인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에서도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대처행동인 소망·기원이 다른 어떤 스트레스 대처행동보다 행동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이 두 스트레스 대처행동들은 다섯 가지 행동문제들을 모두 어느 정도씩은 예측을 해주지만, 보다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행동문제는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으로, 이는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들 중 특별히 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설명력을 보면, 의사소통요인 중에서는 특히 모거부·억압성과 부개방·친밀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요인 중에서는 소망·기원과 해결방안강구가 행동문제 예측력이 있었는데, 이는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를 합쳐서 볼 때 이 요인들이 행동문제의 발생이나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각 예측변인들은 서로 다른 행동문제들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모거부·억압성은 특히 미성숙행동, 공격행동의 증가를, 부개방·친밀성은 위축행동의 감소를 가져오며, 소망·기원은 과잉행동과 불안행동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대처행동을 하고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층의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 및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그들의 행동문제와 관련하여 각 변인의 특성과 그들 간의 관계 특성 및 그에 내포된 부모 간 차이 양상에 관한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아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편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대처행동도 적지 않게 사용하며, 행동문제로는 불안행동과 과잉행동을 비교적 많이 보이고 있다.

둘째, 긍정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부정적 대처행동을 증가시킨다. 중요한 긍정적 대처행동은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이고, 중요한 부정적 대처행동은 소망·기원, 보복·양갈음이다.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킨다. 특히 모거부·억압성이 미성숙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을 증가시키고, 부개방·친밀성이 위축행동을 감소시킨다.

넷째,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등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소망·기원, 보복·양갈음 등의 대처행동은 행동문제를 증가시킨다. 특히 소망·기원은 불안, 과잉-, 미성숙행동을 증가시키고, 해결방안강구는 불안, 공격-, 미성숙행동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의사소통변인 중에서는 모거부·억압성과 부개방·친밀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 중에서는 소망·기원과 해결방안강구가 행동문제를 가장 잘 예측한다.

여섯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의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동일한 의사소통방식도 그것이 부모 중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또는 행동문제에 다른 영향을 주며, 동일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또는 행동문제도 부모 중 누구의 영향에 더 민감한지는 해당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간에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덟째, 소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부모행동도 한 가지 방향으로의 영향력만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부모행동이 “부정적”인 아동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거부·억압적 의사소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소망·기원 대처행동은 행동문제에 대한 부정적 함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커서 연구는 물론 부모나 아동을 위한 올바른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요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세 주요 변인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떠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주로 영향을 주며 특별히 어떤 아동행동문제를 유발 또는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어떠한 행동문제를 유도 또는 억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그 나름의 이론적,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부모 간 차이의 양상들도 주어진 변인간 관계들을 보다 철저히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지녀 보완적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표집의 연령적 한계로 일부 변인간 관계의 방향성 해석에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다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연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료 분석이 전체적인 변인간 또는 하위변인간 상호관계와 예측력 분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러한 차이들이 부모 간 차이와 어떠한 양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시도될 여지가 있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적 속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분석 및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탐색과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행동문제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어머니를 단일 정보원으로 하여 수집한 관계로 분석 결과가 왜곡 또는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상호보완적인 중다방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두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생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와 모의 별도 분석보다는 부와 모의 의사소통방식의 특성 조합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보는 방법이 보다 실제와 가까워질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아동,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동문제

참 고 문 헌

강성희, 이재연(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권 2호. pp. 175-188.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성애(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승원(1999).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현주(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 사고의 관계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하영(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권 7호.

박진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권 3호. pp. 107-122.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권 1호. pp. 39-52.

안경숙(1993).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유안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권 2호. pp. 5-21.

이경주, 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pp. 15-26.

이정덕, 권영옥(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권 1호. pp. 115-133.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정나영(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세용(1994). 부모의 촉진적인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영(1987). 십대 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1,2학년들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우(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현온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1호. pp. 167-178.

홍순덕(1998).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 4-1 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Band, E. B. & Weisz, J. R.(199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pp. 247-253.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Cohen, F. & Lazarus, R. S.(1983). *Coping and adaptatio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New York : Basic Books Inc. pp. 608-635.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 98, pp. 310-357.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M.(199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pp. 405-411.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kman, S., & Lazareus, R. S.(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pp. 119-136.
-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pp.1799-1813.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pp. 33-54.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pp. 150-170.
- Holahan, C. J. & Moos, R. H.(1987).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pp. 365-370.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pp. 689-697.
- Moss, R. H., & Billing, A. G. (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 among adult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8. pp. 269-277.
-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pp. 163-186.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pp. 813-819.
- Rowlison, R. T. & Felner, R. D.(1988). Major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pp. 432-444.
- Ryan-Wenger, N. M. (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pp. 256-263.
- Windle, M., & Windle, R. C.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pp. 343-363.

(2004. 10. 29 접수; 2004. 11. 24 채택)